

‘삼성생명수·신한생면’ 보험사, MZ세대 겨냥 ‘이색 협업’

삼성생명 ‘삼성생명수’
판매수익금 일부 환아 치료비 지원
신한생명 ‘신한생면’
BGF리테일·CU와 협업제품 선보
DB손보 ‘내차보험 만기라면’
CU에 제품 진열... 홍보효과 기대



삼성생명의 ‘삼성생명수’.



신한생명의 ‘신한생면’ 제품.

보험사가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에 속속 나서고 있다. 생수와 라면을 출시하고, 독특한 이름으로 재미를 더해 일명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을 통한 생수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했다. 제품 이름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라는 의미와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을 더해 ‘생명수’라고 정했다. ‘삼성생명수’는 전국 141개 이마트와 온라인 이마트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품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환아의 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속해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다양하고, 색다른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남도 서울대 교수팀과 협약을 통해 트렌드 리포트를 영입에도 활용하고, 임직원들도 트렌드 학습자료로 사

용하고 있다.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번 삼성생명수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협업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좋은 의미를 담은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생명도 앞서 ‘신한생면’을 출시해 업계의 눈길을 모았다. 신한생명은 지난 2월 BGF리테일의 CU와 협업을 통해 생면우동인 ‘신한생

면’ 기획 제품을 선보였다. ‘신한생면’을 포함한 발렌타인데이 컨셉으로 구성된 ‘신한생면 레디백 패키지’도 3000개 한정판으로 함께 출시했다. ‘신한생면 레디백 패키지’는 예약판매 개시 당일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생면’ 출시 회사 내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에 반응이 좋았던 협업 중 하나”라며 “업계를 떠나서도 재밌는 기획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이색 협업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DB손보는 BGF리테일의 CU, 네이버파이낸셜과 컵라면과 자동차 보험을 연계한 이색 상품 ‘내차보험 만기라면’을 출시하기도 했다. ‘내차보험 만기라면’은 ‘더베터질라면왕컵’의 패키지를 변경한 한정 상품이다. DB손보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보험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협업의 일환이다. DB손보는 해당 상품 1만3000여개가 CU에 진열되는 것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보험사와의 협업은 유통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협업에 장르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라며 “기존 유통업계는 식품 쪽으로만 협업을 이어왔지만, 보험을 포함한 금융권과의 협업에 대해 반응이 좋아 지속적인 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금융권, 인허가심사 ‘무기한 지연’ 개선

금융위, 소송·조사·검사 등 진행 중 사안중대성 따라 6개월마다 재개 기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당국의 인허가심사 중 형사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해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따라 심사중단을 면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감안한 조치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소송, 조사, 검사에 따른 중단 기준이 모호해 신규사업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판단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중단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세분화·구체화 된다.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인허가 심사를 중단된다. 크게 ▲조사 ▲제재 ▲검찰 고발 ▲기소 ▲재판 등 절차와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 가능성 등 원칙별 요건으로 나눠 살펴본다. 고소·고발이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제수사(압수수색·구속), 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절차는 인허가 신청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공정위나 금감원,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인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마

지는 모두 중단한다. 신청서 접수 전 조사 절차가 시작됐거나 신청서를 낸 이후라도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졌을 때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 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희망사다리’ 특별채용 20명 확정

7개 관계사 참여... ESG 경영 실천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그룹 내 7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특별채용 전형 프로젝트 ‘금융에서 희망을 쏴다! 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0명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그룹 차원의 ESG 채용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창업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희망퇴직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 등에게 ‘희망사다리’가 되고자 지난 2월부터 학력과 나이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들은 여행상품·패션·디자인·미

디어 콘텐츠 기획·IT솔루션 개발 등 비금융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26세부터 41세까지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구축한 전문성을 살려 미래금융사업, 중소기업금융,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섹션에서 전문위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특별채용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ESG 경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채용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송금하고 치킨 받으세요”

‘가족에 송금하고 치킨파티!’ 이벤트
NH농협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플랫폼 올인뱅크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용돈 송금하고 치킨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자주 송금하는 계좌들을 ‘자주쓰는 계좌’의 가족 그룹에 등록된 고객이나 ‘받는 통장표시’에 ‘용돈’이나 ‘치킨’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3만원 이상 송금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총 1000명을 추첨해 또래오래 치킨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계좌 등록 건수와 송금 건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안상미 기자 smahn10@



디지털금융부문 이상래 부행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족에게 용돈 송금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치킨 파티도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편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안전운전 캠페인

DB손해보험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DB손보는 지난 3일부터 약 한 달간 ‘가족사랑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현재 비운전자라도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될 시 법규 준수를 서약하는 것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DB손보 고객용 앱,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프로모션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 인증으로 안전운전 서명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서명 완료 시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정비 쿠폰(엔진오일 교환 50% 할인권, 와이퍼 교환 50% 할인권 등 4종)도 제공한다. /백지연 기자

주금공, 취약계층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 실시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금공은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금공은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

보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에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지만 앞으면 된다.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콜센터,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